


# 이휘소 박사 펠로우십



FELLOWSHIP PROGRAM

*Benjamin W. Lee*  
Theoretical Physics: Senior

이휘소 박사(Benjamin W. Lee)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불행히도 1977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당시 이휘소 박사는 1973년부터 미국 페르미 국립 가속기 연구소 이론 부장을 맡고 있었고 이론 물리학자들과 실험 물리학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최우선의 목표 중 하나로 페르미 연구소의 이론 부를 이끌고 있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 페르미 국립 가속기 연구소에서 이휘소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이휘소 박사 펠로우십(Benjamin W. Lee fellowship)을 2008년에 제정하였다. 이 펠로우십의 주된 목적은 입자물리학 이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운 연구자들을 페르미 연구소로 초빙하는 것이다. 펠로우십 기간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1년

**저자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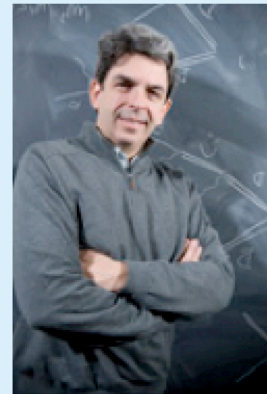
원은일 교수는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1997)하였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원(2002-2004)을 거쳐 2004년부터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unil@hep.korea.ac.kr)

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페르미 국립 가속기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주제 발표와 연구소 내부 프로그램인 페르미 연구소 강연 프로그램에 초대된다.

본 펠로우십은 현재 페르미 연구소 부소장으로 있는 미국 시카고 대학 물리학과 소속 김영기 교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2008년 당시 필자는 안식년으로 페르미 연구소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해 늦은 봄, 김영기 교수가 필자에게 이 펠로우십 계획에 대하여 흥분하며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새삼스레 기억이 나고 이 글을 본인 또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작성한다.

본 펠로우십의 첫 번째 수상자는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 물리학과 교수인 Gustavo Burdman이다. Burdman은 페르미 연구소에서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기본입자의 질량에 대한 근원에 대한 연구이고 두 번째는 암흑물질의 기초적인 성질에 대한 연구이다. Burdman 교수는 1994년 연구원 시절을 페르미 연구소에서 지냈으며 추후 아내가 되

**Gustavo Burdman is first Ben Lee Fellow**



Gustavo Burdman

Gustavo Burdman shares many of the interests of the late esteemed theorist Ben Lee. Burdman will get a chance to further explore those interests as the first Ben Lee Fellow.

The fellowship was created last

는, 당시 천체물리학을 연구하던 Ivone Albuquerque 박사를 만났다. 아내인 Ivone 박사도 페르미 연구소에 같이 와서 암흑물질 연구를 할 계획이고 Pierre Auger 우주선 실험 연구도 참여할 것이다.

이휘소 박사가 입자물리학 이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내고 있었고 또한 사망 직전에는 우주론에 대한 연구를 막 시작했다는 점을 볼 때 Burdman에게 수상된 첫 번째 이휘소 박사 펠로우십은 이보다 더 적절할 수 없을 정도로 수상이 잘 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고 이휘소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이휘소 박사 펠로우십이 이제야 만들어지는 것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이론 물리학자가 이 펠로우십을 수상하고 더 나아가 이휘소 박사의 업적을 능가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미래를 꿈꾸어 본다.